

第282回國會 (臨時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豫算決算基金審查小委員會)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22日(水)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審査된案件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

(09시38분 개의)

○소위원장 안민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좀……

○소위원장 안민석 예,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오늘 여기 죽 남아 있는 미제 안건이 많은데요. 안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등록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시부터 미래특위가 바로 열방에서 개의돼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등록금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하는 순서로 잡아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도 이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눈물나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그런 차원이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순서를 등록금 부분부터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정영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丁英姬 委員 예, 그러세요.

○소위원장 안민석 그러면 어제 국가장학기금 정부 수정안 설명하면서…… 위원장의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위원들을 농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

각됩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갑자기 들이대서 얼렁뚱땅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등록금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1조 3000억으로 올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1조 3000억을 다 쓰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 부분을 다 풀어 보라고 했는데 속기록이 하루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어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평소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어제 장학금 그 건은 완전히 기만하고 농락하려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해명을 받아 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있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제 당일 날 회의장에서 배포가 됐습니까? 책임 있는 분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건 수석님이 책임 있는 분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그것은 제가 책임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사국에서……

○소위원장 안민석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배포가……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의사국에서 배부를 4월 15일 날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접수돼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조금 착오를 일

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안 됐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실무자들의 착오는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의사국 의안과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쪽에서 해명되어야 될……

○소위원장 안민석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의사국장입니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의 책임자를 오라고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지금 오라고 그러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이것 완전히 위원들이 그냥 속고 넘어갈 뻔한 것 아닙니까, 어제 그냥 넘어갔으면, 1조 3000억 가지고 등록금 문제 해결되나 보다 하고……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원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의사국 오라고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예, 그런데 원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기금계획 변경안은 당초에 추경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배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수정 기금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부가 늦어졌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여대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머리 삭발까지 하는 이런 대한민국인데 우리 국회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학 장학금·등록금 부분은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런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 대학생들이 들으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단순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따로 규명을 해 보기로 하고요.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09시45분)

○소위원장 안민석 어때요, 이상민 위원님부터 등록금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 다 이야기……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제가 좀 말씀을……

○이상민 위원 이것을 종전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이해 부족 탓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요.

기존의 정부안, 민주당 안, 선진당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바뀌었으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 우리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먼저 어제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어저께 1조 30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조 3000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이 약 1조 3000이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먼저 대출을 해 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SLBS라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채권시장에서 1조 3000을 조달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이 이미 먼저 대출해 준 금액을 나중에 갚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과거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1300억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10배 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조 3000을 저희가 조달을 하면 2학기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안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됐다기보다는 1300억이 넘어왔을 때 앞으로 장학기금에서 그만큼……

○소위원장 안민석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마치 추경 등록금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저만 그렇게 이해했던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에서야 지

금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게 1300억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667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지만 그게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러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원래 안하고는 액수 똑같다. 그러나 단지 재단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 기금 운용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맞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걸 비비 꼬아 가지고 산 넘고 강 건너서, 그런 식이었던 말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죄송한 게 아니지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국장인가요, 과장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러면 그건 국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안 하면 그 설명의 방식이, 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봐서 나중에 이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저희 자유선진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무상장학금 지급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 수정안을 보면 그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방식이 대출 형식으로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무상장학금 지급하는 방식은 없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추경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대출이 고율이라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한편 사실은 취업도 안 되는데 졸업해

봤자 빚만 떠안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더더구나 형편이 나은 집 학생의 경우는 좀 덜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선진당에서 얘기하듯이 일정 금액을 무상장학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으로 2223억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5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430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것을 액수를 좀더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도 있지만 추경에서도 수혜 대상자를 좀 넓혀서, 이 5만 2000명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정작 이런 따뜻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한테 가기 위해서는 결국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요건도 완화해야 되고.

지금 학자금 대출 방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만 매달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것보다 더 안 되는 학생들이 지금 문제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수록 최하위층에 있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텐데 정부 측으로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추경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래서 맨 아래에 보면 대학생 근로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25억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105억 정도를 반영해서 무상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민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 범위를 좀 넓게 하든지요.

차관님, 차관님께서 정치적 판단을,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이것을 외면할 입장이 아니실 테니까 차관님께서 정책적 결단을 좀 내려서 그냥 몇 개 짜깁기로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추경에 대출 방식만 있는데 저희들은 무상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없는 계층 학생들에 대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좀 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상민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대폭 올려도 되겠어요? 학자금 대출을 다 무상지급으로 우리가 의결하면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소위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국장님이나 차관님 두 분 중 한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부안으로 갔을 경우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정부안에 대해서 ‘아, 정부가 좀 성의를 가지고 추경에 등록금 문제를 반영했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평가할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667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최근에 졸업한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0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이 좀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저희가 했지만……

○**소위원장 안민석** 됐고요.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반값 등록금이라는 울가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선거 전에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머리 쥐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노력은 하는 자세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어제 하루 종일 심의하면서 솔직히 위원장 소견으로는 대부분 추경예산 아이템 중에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거나, ‘야, 이것 하면 진짜 고용 창출이 많이 되겠다’ 그런 예산은 불과 두세 개밖에 없어요. 저는 틀 자체를, 이번 교과부 추경예산은 등록금 문제 해결하는 것에 국회와 정부가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도 대학생이나 서민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선진당 이 정도의 안으로 과감하게, 예결위에서 또 삭감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으로 과감한 추경예산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다, 이것 다 서민 자녀들, 가난한 아이들 등록금 낼 수 없어 가지고 주유소에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교과위 추경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고 공통의 가치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영희 위원님.

○**丁英姬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이상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수혜 폭도 넓혀야 됩니다. 지금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신용 창출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겠다는 대책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자 없이 한 10년 동안 대출해 준다든지 또 졸업한 후에 취직이 안 되면 계속…… 왜냐하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거의 탕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김선동 위원** 여당 위원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대학생들이나 국민들한테 인지되어 있다고 하는 등록금 반값, 사실 저희들이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나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일률적으로 반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정

확한 위당이 뭐냐 하면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이렇게 노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 야당 위원님들도 정부여당의 진실성 이런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있는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딱 줄이겠다는 공약은 논리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부담할 여유가 있는 계층도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반값이라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지혜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과장이 되거나 확대되거나 호도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전체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14조 정도입니다.

○**김춘진 위원** 2년제 대학은 얼마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2년제 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14조면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돈이 7조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우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춘진 위원**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하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여를 해 준 다든지 연기해 준 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러한 대책이, 지금 14조니까 반이면 7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장학금도 넓혀 가고 있지만 그 외에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10월까지 실무안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불제 도입은 5분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첫 해에 약 2조 5000이 들어가고, 이게 누적되어 가고 그다음 해에는 약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대개 4년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는 데 한 1~2년 걸리면 거의 1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약 7~8년 정도 2조 5000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인다고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추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학생들이나 국민들은,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공해 준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실제와는 다르다든가 심리적으로 반값이니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은,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등록금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하고 학생들한테 바보라고 하는 것이나 당신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성질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물은 옆질러졌어요. 지금 아무리 반값 등록금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것 공약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물이 옆질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야가 정부와 다함께 수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서민 자녀들 등록금 부담 문제를 덜어 주자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학생들 도와주고 반값으로 하는 것 다 좋지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지만 이번 추경은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쪼개서 해야 되니까 정부여당에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다음 본예산 할 때 정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오늘 이것 가지고 계속 토론해도, 다 해 주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런 공약을 했다면 우리 여당이 오히려 더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소위원장 안민석 저는 여기 추정 항목 중에서 한 2~3개를 제외하고 등록금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등록금 문제를 위원회에서 양보하면 이 추정 심의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춘진 위원 제가 또 한마디 묻겠습니다. 긴급이자 지원을, 1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예.

○김춘진 위원 그게 147억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147억 원의 59.9%인 88억 원이 소득 8~10분위 학생한테 지원되거든요. 이것이 2008학년 1학기부터 2009학년 1학기 대출금에 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 재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부유층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현재 대출받은……

○김춘진 위원 긴급이자 지원에서 그 돈이 147억인데 그 중 59.9%가 소득 8~10분위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5분위까지만 배려를 하더라도 힘들다 그랬는데 5분위가 아니고 8~10분위에 이렇게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분위는 무이자입니다. 그다음에 3~5분위는 현재 4%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분위는 1.5% 해 주고 있고요, 8~10분위는 아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여기는 안 해 주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긴급이자 지원 10%를 낮춰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10%인데 그 10%라는 것은 0.6% 정도입니다.

○김춘진 위원 낮춰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증세를 해야지요. 증세를 해야 되는데, 과거 IMF 때 증세하고 세출 줄여 가지고 IMF 재원을 조달했어, 채권 조달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도 바로 이러한 부분의 세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런데 저희가 보면……

○김춘진 위원 뭔가 부유층한테 가는 것을 줄여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8~10분위 중에서도 가처분소득의 여러 가지 한계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춘진 위원 많은 건 알지만 이 사람들은 담보 능력도 있고 자산도 많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국민들 중에 8, 9, 10이면 30% 이내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부자예요.

그러면 30% 이내에 드는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는 것은, 이런 걸 없애고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데에 더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소득이 1등 2등 3등, 10명 중에 3등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건, 결국 그런 것 알면서 이걸 입안한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쪽은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현재 금리가, 작년도부터 6%대의 대출금리가 7%대로 올라섰습니다. 7.65, 7.80, 금년에 7.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금리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게 되면 6%대로 낮춰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이자를 하게 된 겁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돈도 쓰고 있고, 또 1~2% 쓰고 있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은 상위 소득자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결국 하위 그런 사람들한테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IMF 때도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가…… 지금 이자율 높아지잖아요. 돈을 한은에서 22조 풀어서 저렇게 이자가 높아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 높아졌지……

○소위원장 안민석 잠깐만요, 김춘진 위원님.

지금 등록금 예산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요, 일단 반값 등록금 공약 규명을 위한 규명위원회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분명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17대 때 오갔는지,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정부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교과위 차원에서 별도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18대 내내 반값 등록금 공약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서로 공방하는 그런 비생산적인 건 없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등록금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고, 저는 이 등록금 문제를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잘 합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안민석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학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안민석 그러면 의결은 보류하더라도 일단 등록금 문제로 지금 제동이 걸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야기들을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철우 위원 정부하고 당하고 상의한 것 김선동 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김선동 위원 어저께 대학생학자금지원 예산 관련해서 이견들이 있어서 정부 측 안하고 각 당의 안을 우리가 준비하는 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토론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오늘 저희들이 대비표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 측을 설득을 해서 최종안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안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부분에서 정부안은 사실 없었는데 7만 5000명 곱하기 210만 원 해서 차상위계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1575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안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결위에서는 소득 8분위까지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7분위까지 하자 해서 605억 원을 얘기를 했고, 정부 측하고 설득을 해서 논의해 본 결과 5분위까지 해서 금년분 45억 원은 반영할 수 있다고 조정안을 냈고요.

그다음 한국장학재단 자본금 출연금은 정부안이 당초 1300억 원이었는데 다음 회계연도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두 배인 2600억 원으로 가자고 절충안을 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안이 11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었는데 실제로 교과부에서 파악한 결과도 그렇고 실제 소요는 4만 정도면 된다는 판단이고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한 1만 명 정도를 추가해서 57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488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자라는 안을 우리가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최소 1조가 되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보환 위원 그 최소 1조라는 기준은 뭐로 최소 1조라고 했습니까?

○소위원장 안민석 저희도 그동안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대학생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추경에 할 수 있는 최소 선이라고 봅니다.

○박보환 위원 지금 학자금 지원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소위에서 협의가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소위로 넘어온 것인데 다시 정회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안민석 저는 정부 여당에서 약속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100% 대안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실한 모습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철우 위원 반값등록금을 이번 추경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안민석 이번에 다 해결은 못하지요. 그래도……

○**이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 안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안에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이것을 들고 밤새도록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유보시키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토론합시다.

○**소위원장 안민석** 지금 추경에서 등록금만큼 지급한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중시하는 다른 안건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소위원장 안민석**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철우 위원** 오전부터 계속 이 한 건 가지고 이려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안민석** 아니, 위원장으로서 정부 여당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약속을 추경에 어느 정도 포함시키라는 주장이 과도한 겁니까?

기자 데리고 왔나요? 이 논쟁을 언론에 내보내야 되는데……

반값등록금 약속한 것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이철우 위원** 반값이 아니라 무상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소위원장 안민석** 안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위원** 나라 살림살이가 이렇게 안 되니까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이고……

○**소위원장 안민석** 다른 쓸데없는 예산들은 추경에 다 넣었어요. 어제 추경 예산 하루 종일 심의했는데 안 계셨지요? 실질적으로 긴급하거나 고용창출에 관련된 예산은 불과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들은 확보하면서……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데 오늘 여기에서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안민석** 아니, 그 결론을 안 내려고 하면……

○**이철우 위원**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지요. 타협하려고 안을 냈는데 타협이 안 되면 일단은 유보를 해 놓고 좀 이따가 다시 하더라도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을 들고 오전부터 내내 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소위원장 안민석** 그러면 다른 안건 해 봅시다. 그런데 다른 안건이 이상민 위원이 없어 가

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것은 등록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선진당안이 있는데 이상민 위원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지요.

○**김춘진 위원** 등록금 지원을 상임위에서는 올려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박보환 위원** 심의해서 올린 것이 과연 예결위에서 어떻게 비취질까요……

○**황우여 위원**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정부를 많이 설득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내 본 거예요.

○**김춘진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 증액 얼마였지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거의 1조 정도 했습니다.

○**김춘진 위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반영이……

○**이철우 위원** 거의 안 되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부에서 1조 원을 동의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박보환 위원** 1조가 올라가면 예결위 통과 전망은 어때요? 상관없이 그냥 일단 올려보자는 것인가?

○**김춘진 위원** 본예산에 1조 한 것도 안 됐잖아요.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박보환 위원**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일단 올려봐 보자 이것이지요?

○**김춘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조 올렸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올렸어요?

○**김선동 위원** 사실은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소위원장 안민석** 교과위에서 이것을 올리면 한나라당이나 정부 여당은 큰일 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철우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런 사고 자체가 국민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김춘진 위원** 건교는 얼마나 올렸는지 알아요? 건교는 몇 조 올리고 다 올리는데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통과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이철우 위원** 옳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치는 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야지.

○**김춘진 위원** 장난이 아니지, 자기 속해 있는 부처에서 주장하는 걸, 부처 예산을 많이 올려 주자……

○**황우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도 상임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고 여당의 간사를 하나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간사들 간에 수시로 합의를 보셔야지, 위원장님은 권위 있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이걸 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소위원장 안민석** 우리는 간사 지정할 사람이 없어요.

○**황우여 위원** 그래도 김춘진 위원님하고 두 분이 해 와라, 이렇게 위원장님은 명을 하시고, 또 여기 이상민 위원도 그 당의 간사 아니야.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토론이 각자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전에도 대개 소위의 위원장님이 ‘간사들이 가서 협의를 해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타결이 되지요.

○**소위원장 안민석**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대로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황우여 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소위원장 안민석** 법안소위 할 때도 그러지는 않는데……

○**김선동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상민 간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합의 도출에 전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때문에 이상민 간사가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정식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정회 기간 동안에 한나라당도 한나라당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모아보고 또 민주당 위원님도 토론하시고 해서, 나중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만나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이상민 위원이 몇 시에 오지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이상민 위원님은 4시부터 또 미래특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아니,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상민 위원이 잠시, 물밑에서 합의만 되면……

○**김선동 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지금 이 분위

기에서……

○**소위원장 안민석** 정회하고 4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안민석** 속개하겠습니다.

보류 내역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등록금부터 넘어갑시다.

지금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정부 측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장 김차동**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재정책실장입니다.

전체 합계해서 823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2072억 원이고,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6158억 원입니다.

무상장학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조금 더 반영되었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서 5분위까지 무이자대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이 1300억이 증액되었고, 근로장학금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전체 인원은 7만 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죽 가겠습니다.

보류내역 죽 하고 마지막에 방사광가속기 이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심사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이 사안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전제로 다 아시고 그 전제 위에서 심사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안민석** 다 이야기했습니다.

1번, 교과교실제지원 2000억, 이견이 있으신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김선동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2번, 초중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이견 있으신 분만 말씀하십시오.

○**김춘진 위원** 이견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1960년대 이전에 지은 학교 시설 짓는 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우리가 어제 검토할 때 1960년 이전에 지은 학교, 그러니까 48년 이상 노후도를 가진 학교들은 5000억 반영해서 하기로 어제 합의가 됐지요?

○**김춘진 위원** 그런데 이 돈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그 학교들이 화장실이 물론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포함이 됐을 것이고 중복투자의 우려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돈을 삭감하지 않고 그것만 올리면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없애고 그것을 한다면 다소나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 화장실 개선하는 것 총 학교 수는 4325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노후교실 관련해서 60년 이전에 된 게 113개 교거든요. 물량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약 2.2%이기 때문에 화장실 분량 약간만 조절하면 저희가 할 수 있고, 화장실은 너무 오래돼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량은 저희가 약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요.

○**김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것은 조절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실에 금이 가고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어제저녁에 내가 말씀드린……

○**황우여 위원**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남겨 두어야 될 게, 김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이와 별도로 교과부에서 한번 그것을 점검하셔서 그 일을 보살펴 드리세요. 그렇게 별도로 얘기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육성지원관 정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렇시다.

○**소위원장 안민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2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미취업대졸생 대학내 교육훈련지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 죽죽 읽어 나가십시오.

○**김춘진 위원** 이것 어제 논쟁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꼭 필요하다면……

○**소위원장 안민석** 감사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4번,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지원,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군 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김춘진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소규모 통폐합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4배나 더 증액시켜 가지고 프로모션(promotion) 시키겠다고 하는데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거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손길이 많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이것만 보류하고, 그다음 하고서……

18번,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번, 초중등교원 정원 확충 사업, 이것 임시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1번, 역시 이것 임시적입니다. 특수교사 확충 사업,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2번, 역시 임시적입니다. 사서교사, 상담교사 확충사업,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번, 지역아동센터 교사 배치 지원사업,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번, 이것 할 필요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이것은 증액됐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 20번~23번까지는 타이틀이 변경되어야 되지요?

○**소위원장 안민석** 예.

○**김선동 위원** 그것 전제로 해서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다음에 어제 감액했던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민 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지금 토론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잠정적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금 미진해서, 미흡해서 그 결론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제가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드린 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기 황우여 위원님이나 이철우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여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의견을 받아서 십분 수용해 달라는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계없이, 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준거 틀이 되는 다른 과학기술인들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황우여 위원님이나 이철우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미흡함이 있었다든가 인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포항공대 가속기 부분에 대한 것을, 종전 합의를 번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하여튼 방사광가속기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데 100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매년 100억 씩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투입되는 만큼, 물론 수수료 수입은 대략 매년 4~5억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금전적 가치만으로 가속기 사업이 마땅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쌓이는 시행착오나 과학적 노하우 이런 부분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평가는 추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과학기술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시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정 때문에 제 주장을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막중한 책임이 포항공대, 이 가속기 연구소나 포항공대분들은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포항공대가 사립대이고 분명히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다른 대학들보다도 훨씬 사정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에 의존해서 마치 때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 포항가속기, 지금까지 상당 기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또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나중에 집중 추궁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장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교과부 차관,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죠?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장기원** 예.

○**이상민 위원** 그 점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지는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발전 있고 국민 혈세 알뜰하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 배정한 걸 보면 대부분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에 투자하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에 추정 편성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평가 작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이게 3세대라고 그러는데, 1세대·2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숫자만 낼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검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의 지역이 어딘지, 서울 지역의 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하는지 또 부산에 있

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서울 지역이 이용을 많이 한다면 기존에 있는 가속기를 놔두고 새로운 가속기를 신설할 때 이 서울·경기 지역에 만들면 과학자들이 그만큼,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얼마나 단축이 됩니까? 그래서 연구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성능향상 시키면 한 500명 정도가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성능이 안 좋은 걸로도 다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정도인데, 그러면 500명 정도의 필요한 연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 가까운 지역에 만든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까운 데 많은 이용을 하고, 그 500명이 이쪽 지역 사람이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대 몇으로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줄 건지 이용하는 사람의, 그런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민간 연구소도 있고 정부투자 연구소도 있고 대학 연구소도 있고…… 그런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해 보고 개선점이 뭔지, 그동안의 장점이 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돈만 달라고 그러고 기존의 6개월, 이 돈은 계속 지속사업인데 과연 금년에 이 돈을 주지 않고, 내년·내후년에 계속 들어가는데 내년·내후년에 예산 책정 잘 못 하면 그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예산 제대로 안 주면, 내후년 예산 제대로 안 주면, 지금 준다 할지라도……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김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안 준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많이 주고 내후년에 안 주면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정 목적에는 이것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아까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제대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과부에서 이런 걸 할 때는 꼭 그렇게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중간평가를 만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37번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요.

이제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시 11번 군 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게 370억인데요.

○**이상민 위원** 잠깐만, 등록금 문제는 결론이 났어요?

○**소위원장 안민석** 예.

○**이상민 위원** 이거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정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나라당하고 자유선진당은 다 어디 갔어? 여기 논의 구조에 왜 정부와 민주당만 있냐고요. 이거 고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그거 표시가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되고, 위원회 이름으로……

○**이상민 위원** 아니, 표시가 아니라 나눠 주는 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여기 한나라당하고 자유선진당……

○**소위원장 안민석** 앞으로 민주당으로 표기할 일 있으면 선진당으로, 야당을 대표하는 선진당으로 균형 있게 또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이상민 위원** 앞으로 행정실에서 유의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예.

○**소위원장 안민석** 자, 11번 이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거 관련해서 김춘진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폐지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폐지할 때 들어가는 예산보다 오히려 4배가 많은 형태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저희들이 기존의 학교,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개별 학교 단위로, 재학생이 너무 적을 경우에 개별 학교 단위로 통폐합을 즉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왔고,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1년에 한 80개 정도가 지금도 계속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올린 군 단위, 저희들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 사업은 일종의 새로운 접근 전략입니다.

군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해서 군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계도 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개 있는 거보다 인근의 소규모 학교는 묶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환경도 대폭 투자를 해서 개선하고 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규모를 약간 키우면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오히려 인근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육성 쪽에 주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군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군 의회의 의결도 거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공모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과부에서 일률적으로 강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이철우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370억이면 학교 몇 개나 해당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저희들이 계산은 연간 절감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 370억인데, 학교를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한 학교 만드는 데 얼마쯤 계산해야 370억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학교 신설비는 아닙니다.

○**이철우 위원** 이전하고 통합하고 시설비 들면, 대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쯤 한 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철우 위원** 370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370억이 일종의 인센티브 이런 건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절감액 기준으로, 연간 절감액의 4배를 산정한 거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은 각 군에서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지역개발계획에 맞게 해 가지고 ‘우리는 강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당도 들어가고, 체육관에 필요하다면 체육관에 들어가고, 다목적실이 들어가면, 교실이 더 필요하다면 증축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철우 위원** 제목을 바꿨습니다.

○**황우여 위원** 잠깐만요. 제목도 잘못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교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할 때 그거를 지원하는 돈 이구먼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식으로 주민들은 불편한데, 또 학교는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인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유도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황우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김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을 달고 하면 어떨까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저희들 당초 이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이었는데, 기재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춘진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교육청별로 실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지금 폐지해서 절감된 예산의 4배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김춘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인책을, 당근을 굉장히 많이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육감들은 학교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통학버스로 갔다가, 한 8km 되는 데를 실어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등교할 때 태워다 놓고 또 한번……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요. 실어다가 주면 된다, 한번 왔다 갔다 해요. 그 시간 놓치면 결석입니다. 그 시간 놓치면 또 퇴근도 못 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아이들은 한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애인데 학교 선생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으면, 선생님이 자주 보면 이 아이들한테 사랑의 손길을 펼 수가 있는데, 만일 이게 폐지가 된다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학교 폐지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80개 정도의 학교가 지금 현재도 폐지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속도전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80개 학교가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고 있는데 그것도 농어촌 지역의 학교 모자라서 더 빨리 폐지시키겠다, 교육감별로 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폐지되는 학교의 4배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폐지하는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지원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존에 폐지한 학교들이 다 돈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까? 기존에 폐지한 학교들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요. 작년에 폐지한 학교, 올해 폐지한 학교…… 지금 올해 전반기 때 폐지한 학교는 4분의 1밖에 지원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섯 달 차이로 돈을 그만큼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그런데 접근 방법이 좀 다르고, 추진하는 과정도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이고 군입니다. 군에서 군민들의 동의를 받고 의회를 통과하고……

**○김춘진 위원** 여기에다가 돈을, 인센티브 주는 제도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교과부에서 기존에 주는 대로만 주라 이거지요. 기존에 지금 주는 대로 줘도 1년에 학교가 80개씩 폐교되는데 당근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빨리 폐교시켜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농산어촌에 있는 지나치게 소규모 학교는 여러 가지……

**○김춘진 위원** 지나치게 소규모 학교는 지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80개씩 없어지는데, 가만히 놔둬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22개 학교가 폐교되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지역은 교육 때문에 이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없으면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은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1년에 80개씩 폐교가 되는데 더 빨리 폐교시키겠다고 하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지금 김춘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절충안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속도라든지 규모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370억을 한 200억으로 하면 김춘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춘진 위원** 지금 1년에 80개씩 폐교가 되는데 더 빨리 폐교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지요.

**○박보환 위원** 지금 이것이 학교들 인접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소규모 학교들 통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설 확충하는 부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셔틀버스 해 가지고 등교하게 하는 그런 예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하면 B라는 학교를 폐교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A라는 학교에 체육관도 지어 주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있는 학교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교에 관계없이 체육관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일자리 창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절로 폐교될 때 이 학생들 거기로 옮기면 되는 것인데, 폐교를 하면 체육관 지어 주고 폐교 안 하면 체육관 안 지어 준다는,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농어촌 학교에도 국가가 당연히 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제가 농산어촌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거점으로 될 만한 학교는 당연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까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체육관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체육관도 지어 주고 강당도 지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을 전제로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농어촌에 그런 대상이 될 만한 학교에다가 이 돈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금으로 쓰십시오. 폐교와 관계없이 체육관 지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은 안 해 주고 통폐합 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 됩니까?

○**이철우 위원** 지금 김춘진 위원님도 예산은 안 깎을 테니까 사업을 한번 잘 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지금 370억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김춘진 위원** 시범이 아니라 학교 폐교되는 것은 이미 되고 있잖아요?

○**이철우 위원** 방금 예산 안 깎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김춘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철우 위원**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김춘진 위원** 안 되지요,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농어촌 학교에는 체육관 안 지어 주다가 폐교하면 지어 주겠다고 하면 됩니까?

○**이철우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면 단위 20명 미만 되는 학교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김춘진 위원** 그래서 지금 폐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우 위원** 제가 선생을 5년 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이 3~5명 있어 가지고는 학교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학생들이 공부할 열의가 나고 선생님도 열의가 나고, 전 과목 선생님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기껏 해야 전국적으로 몇 학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춘진 위원** 지금 3~5명 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이철우 위원** 한 학년에 3~5명 있는 학교 많 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것은 분교지요.

○**이철우 위원** 아니, 한 학년에 3~5명 있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20명 미만 아니면 폐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춘진 위원** 지금 그런 학교들은 놔둬도 자연적으로 폐교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의 문제지……

○**이철우 위원** 저는 통폐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생각에 좀 차이가 나니까……

○**김춘진 위원** 그러면 방사선광학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철우 위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다면 한번 해 보자고요.

○**김춘진 위원** 현재 이미 폐교시키고 있어요, 1년에 80개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더 많이 폐교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김춘진 위원** 지금 현재도 80개씩 없어지고 있는데……

○**황우여 위원** 제가 잠깐 교과부에 물어볼 말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김춘진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자연적으로 폐교되는 것은 모르지만 교과부에서 추경까지 세워서 폐교를 촉진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게 대 전제예요. 그것은 우리도 공감하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되 보다 철저하게, 현재 폐교를 하더라도 워낙 지원이 적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그렇 습니다.

○**황우여 위원** 미국 같은 데는 우리로 치면 군 단위 하나 있으면 거기에 스쿨버스로 보내 주고…… 또 시골은 지금 예체능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체육관도 지어 주고 하는데, 그래서 큼직한 학교를 하나 두고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답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 해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것도 시범적으로 출발해 본다는 것인데, 단 하나 걱정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4배 정도로 해서 주면 혹시라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아쉬워서 폐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로 하면 안 되고, 그 부대조건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첫째는 주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도 그쪽에서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통폐합하면 우리가 학교 지어 주겠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폐합 계획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 예산 때문에 추가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1년에 10개가 통폐합된다고 하면, 그것은 김 위원님도 인정하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 학교에 더 주는 것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김춘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부대조건 달아 가지고 군 단위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황우여 위원** 그것은 예산에 부대조건으로 붙일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공청회를 국회에서 하자는 말입니까?

○**김춘진 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철우 위원** 그것은 정말 한번 해 봐야 돼요.

○**소위원장 안민석** 좋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러니까 기존 통폐합 계획 내에서 새로운 창안의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는 자금으로 써야지 이것 때문에, 통상 10개인데 20개로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으로 못 박자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춘진 위원** 기존에 1년에 80개 학교가 폐교된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폐교되는 학교에 지어 주고, 그다음에 제가 부대조건 하나 더 얘기할게요.

농어촌 학교에 체육관 강당 지어 주는 것이 통폐합 조건이 되어서, 그러니까 통폐합 안 하는

학교는 지금 안 지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춘진 위원** 통폐합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시로, 그런 것을 원하면 빨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춘진 위원** 농어촌 학교에 통폐합 안 해도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소위원장 안민석** 김춘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청회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대의견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채택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970년 이전에 건설되어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792개교의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그다음……

○**소위원장 안민석** 서면으로 해요.

○**황우여 위원** 여기서 또 중구난방으로 하면 시간만 지체되니까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안민석**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동 위원** 예산 논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서 하나만, 어제 밤 11시 넘게 하시고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항목에는 없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해외한국학 중흥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핵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환차손으로 35%가 평가절하가 되어서, 이것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데 해외에서 그 사업이 정작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러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은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크지 않고 8억 6975



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진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원해 줍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안민석** 수석님, 나중에 자료 정리할 때 추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안민석** 이상으로 추경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선 동	김 춘 진	박 보 환	안 민 석
이 상 민	이 철 우	정 영 희	황 우 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노 재 석
전 문 위 원	문 강 주
전 문 위 원	이 용 원

○**정부측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제 1 차 관	이 주 호
기 획 조 정 실 장	장 기 원
인 재 정 책 실 장	김 차 동
인 재 육 성 지 원 관	정 일 용
교육복지지원국장	이 상 진
교육자치기획단장	이 중 원
학 교 정 책 국 장	심 은 석